



노동부  
Ministry of Labor

## 보도자료

▶ 지역고용사회적기업과 과 장 마성균  
사무관 김영현

TEL : 2110-7169  
FAX : 503-6267

▶ 2009. 7. 21 배포  
▶ 총 4 쪽(사진 없음)

< 본 자료는 <http://laborstat.molab.go.kr>(최신보도자료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### '09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900여개소를 통해 취약계층 등 1만8천여명에게 사회적일자리 제공

-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에 예비사회적기업 906개소를 통하여 취약계층 등에 사회적일자리 1만8천여개를 제공하였다고 밝혔다.
- 사회적일자리에 선발된 참여자 중 여성이 1만3천여명으로 전체의 73%를 점하고 있고, 저소득자, 여성가장, 장애인, 장기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은 9,796명(55.1%)으로 나타났다.
  - 이는 예비사회적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전체의 50% 이상을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은 취약계층으로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사회적일자리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한 결과이다.
- 또한, 분야별로 보면 일자리가 사회복지와 문화·체육·교육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.
  -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 사회복지 분야가 43.5% (7,733명)이고, 문화·예술 공연,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교육 서비스 등 문화·교육 분야는 27.2%(4,831명)로 나타났다.

- 노동부는 하반기에도 2천8백여개의 사회적일자리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.
  - 사회적일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비정규직 실직자 등 구직자들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(☎1588 - 1919) 기획총괄과에 문의하면 된다.
- 장의성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“앞으로도 『사회적기업의 전신(前身)』이라고 할 수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, 적극적으로 정부지원을 강화하여 자립기반을 갖추게 함으로써,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분야에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- 붙임 1. 사회적일자리 현황
- 2. 예비사회적기업 개요

**<붙임1> 사회적일자리 현황('09.6월말)**

**□ 성별, 연령별 일자리 참여자 현황**

(단위 : 명)

계	남				여			
	소 계	30세 이하	30~55세	55세 이상	소 계	30세 이하	30~55세	55세 이상
17,773	4,776	1,067	2,282	1,427	12,997	2,116	8,656	2,225

**□ 취약계층 일자리 참여자 현황**

(단위 : 명)

계	장기실업자	장애인	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	고령자	기타 취약계층
9,796	2,466	1,228	245	3,652	2,246

※ 기타 취약계층은 새터민, 노숙자, 여성가장, 신용불량자 등

**□ 분야별 일자리 참여자 현황**

(단위 : 명)

계	사회복지	문화·교육	환경	보건	노동	체육	안전	기타
17,773	7,733 (43.5%)	4,831 (27.2%)	2,462 (13.8%)	778 (4.4%)	285 (1.6%)	33 (0.2%)	32 (0.2%)	1,619 (9.1%)

**<붙임2> 예비사회적기업(중전의 "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") 개요**

**□ 개 요**

- 사회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이 부족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복지·환경·문화·지역개발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비영리단체 등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
- 민간기업 또는 지역사회와 파트너십을 통하여 다양한 자원을 동원함으로써 자립을 지향하는 사업을 의미함
-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명명

**□ 참여자격요건**

-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·허가·지정·신고·인증 등을 받은 비영리법인·조합·단체
- ※ 인증받은 사회적기업도 신청에 의해 참여 가능

**□ 지원내용**

- 참여단체에 참여근로자 1인당 인건비의 일부(837천원/월)와 사업자 부담분 사회보험료(8.5%) 지원
- 경영컨설팅(3백만원 한도) 등 자립기반 조성 지원

**□ 사업유형**

- 기업연계형 : 비영리단체-민간기업-지역사회가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사회적일 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다양한 자원(현금·현물·전문성 등)을 활용하여 자립을 지향하는 모델
- 지역연계형 : 지자체·대학·연구소·공공기관·다른 비영리단체 등 민간기업 이외의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과의 결합을 통하여 사회적일 자리를 창출하고 자립을 지향하는 모델
- 모델발굴형 :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인큐베이팅하는 초창기 사회적일 자리 창출사업으로 기업·지역사회 등과의 연계나 수익 창출구조는 다소 미흡하나, 향후 기업 또는 지역연계형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업모델